제 286 회 제 1 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서천군 의회사무과

2020 년 11 월 9 일 (월) 10시 22분

의 사 일 정 (제1차 회의)

1.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2.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천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2021년 (사)서천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장항도시탐험역 민간위탁 동의안
9. 2021년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2021년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
11.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천군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 의 안 건

1.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2
2.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3
3. 서천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 7
5. 2021년 (사)서천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7
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34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34
8. 장항도시탐험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6
9. 2021년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18
10. 2021년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18
11.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26
12.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8
13.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28
14. 서천군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32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미정

의사팀장 서미정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군수가 제출한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군수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현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 제안설명 ---

○위원장 이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하여튼 출연이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전략과제 1건, 현안과제 3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위원

그래서 지금 21년도에 과제는 어느 정도 수립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아니요, 그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합니다.

○김경제 위원

군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준 위원

그 전략과제 말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연구원하고 계약해서 하는 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용역다운 용역이나 이것은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어떤 타당성 분석 내지는 우리군의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죠.

○조동준 위원

시군 지금 분담금 비율은 금액은 똑같이 3,000만 원이에요, 일률적으로?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군단위요. 시단위는 5,000만 원.

○조동준 위원

군은 3,000만 원?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위원

사실 저는 충남연구원에 저희가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좀 많이 하지 않나. 나오는 과제들이, 결과물들이.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과제 해서 저희가 3천만 원 지급하고 하는 일들 외에 나머지는 기왕에 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충남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들도 협의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전략과제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나머지 과제들도 충남연구원에만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재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말씀 맞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충남연구원에 너무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충남연구원에 하게 되면 우리 서천군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잘 아는 그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외부 용역사를 또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또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해주면 그걸로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들도 너무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꿔 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위원

분명히 성과를 낸 용역의 결과물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수년간 계속해 왔던 일들 중에 정확히 되짚어보면 그렇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내놨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해보면 사실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 거냐?'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잘하니까 그냥 너무 평이하게 그리고 관례적으로 하는 일들로 그냥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천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31분)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천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 제안설명 ---

○위원장 이현호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준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 좀 요청을 했는데 사회복지실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위원

과거에는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5년 단위로 늘려가고 있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위원

그래서 15개 기관 중에, 물론 뭐 어메니티 복지마을이 중복되긴 하는데 12개가 다 5년으로 위탁기간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위원

나머지 남은 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이렇게 3개 기관만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게 관련법령에 '5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자원봉사센터 조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기본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자원봉사활동 조례하고 거기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위법이나 아니면 지침에서 딱 연수를 규정하고 있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말씀처럼 자원봉사센터나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건강가정다문화센터도……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게 상위법에서?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위원

아무튼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로 가능한데, 다른 기관들 5년씩으로 다 조정해놓은 마당에 굳이 3년으로 유지해야 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언제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공공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위탁단체는 5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아마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지금 5년으로 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준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다른 기관들하고 형평을 맞추고, 사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공재산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는 아니잖아요, 이게 5년으로 하는 것이. 위탁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무튼 형평에 맞춰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아진 위원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 보니까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건 개정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그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계속 2007년부터 사단법인 서천복지마을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아진 위원

그 이외에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면 다른 단체나 이렇게 신청하는 데가 있나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만 계속 들어와서요.

○김아진 위원

여기만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아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3년마다 재위탁 그다음에 공개모집 선정하는 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단체는 한 군데고 같은 단체를 지정할 수밖에 없으면 재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재위탁이요?

○김아진 위원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달라요. 재위탁은 항상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은 같은 업체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재계약의 방식을 다음번에는 검토를 해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 부분은 조례에 재위탁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위탁을 하려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김아진 위원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계속 했는데 재위탁이에요. 재위탁인데 재위탁에서 업체가 같으니까 그 업체를 재계약으로 선정을 한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게 재위탁의 방법이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선정의 차이니까요.

한 단계 조금…… 어차피 단계가 공개모집하고 그 단계가 있는데 공개모집단계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또 행정적인 소모가 들어가니까 재계약의 방식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조례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시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업체도 없으니까.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런데 혹시라도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아진 위원

2007년부터 여태 한 군데도 없었는데요?

(웃으면서)

이번에는 어차피 공개모집하니까요. 다음번에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실에서 민간위탁이 아까 15개소에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15개소입니다.

○김경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위탁한 민간업체가 차에다 랩핑을 다 했어요. 랩핑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주차를 아무데나 하고.

왜 그러냐면 랩핑이 안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랩핑이 되어 있고, 또 주말에 차들이 함부로 많이 움직여요. 어디라고는 말 않겠지만 어제 그저께도, 물론 본인들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운행방향이나 장소로 봤을 때는 난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것도 나하고 동승했던 분들이 서천군이 너무 주말에 많이 차들이 움직이고 눈살을 찌푸린다 이렇게……

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저도 목격을 많이 해요, 주차를 너무 함부로 한다든지.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민간인들보다 더 많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표시가 딱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보건소장님한테도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장항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한 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켜서…… 어차피 차량운행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 외에는 실질적으로 랩핑된 자동차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목적에 맞지 않는 운행은 하지 않도록 다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사람이 살다보면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천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지금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1년 늘리는 겁니다.

○김경제 위원

1년 늘어나면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50 : 50으로. 충남도가 50, 우리군이 50.

○김경제 위원

24개월 지급되던 거 플러스 1년 것이 더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렇죠.

○김경제 위원

24개월 하던 걸 나눠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왜 그러냐면 2018년도 비용추계서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2019년도에 3억 9,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러면 20년도를 보니까 5억 3,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위원

올해 1년차가 그렇다는 얘기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이제 3년차가 되는 거죠, 지금.

○김경제 위원
올해가 3년차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11월 1일부터 3년차.
○김경제 위원
11월 1일부터 3년차?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천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천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천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천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2021년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군수제출) (10시51분)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구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 제안설명 ---
○위원장 이현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 위원
여기 보니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이건 지금 동의를 받은 이후에 내년도 가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아진 위원

갑자기 왜 가입을 하려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이게 한 52개 시군구가 가입이 됐는데 저희들이 한번 충남도내도 알아봤더니 대부분이 가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도농 간 교육격차해소, 교육경쟁력제고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가입해서 나름대로 정보공유, 또 우리들이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 정보교환도 하고 저희들이 우리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부응해서 할 수 있는 저기를 하려고 그래서 가입하는 겁니다.

○김아진 위원

충남도에서 대부분 시군이 가입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저희들이 대충 알아보니까 일부 시군은 가입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이 가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군수님이 여기에 의중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교육경쟁력이 저기하잖아요, 대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아진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 쪽에서 대부분 가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다보면 행정협의회가 이뿐만 아니라 다른 협의회도 대도시 위주로 구성이 되고 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아진 위원

그래서 우리는 굳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이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동의안 하고 가입을 하면 출연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죠.

○김아진 위원

출연도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 지역에 이 출연금 갖다가 용역 한번 주고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굳이 이걸 또 충남에서 대부분 가입을 하고 우리만 안 했다 하면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세 군데밖에 안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충남은 세 군데에요.

○김아진 위원

다른 시군도 동향이 가입하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우려가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이게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2018년 3월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각 시군구에 아직 전파는 덜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작년에 한 데도 있지만 올해도 하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쯤해서 저희들도 접근한 겁니다.

○김아진 위원

전체적인 전국적인 것보다 우리는 충남지역에서 같이 연합을 해서 의견을 듣고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충남 가입수가 적다보니까 이게 조금 빠른 감이 있어서 그랬고요.

출연금은 그 이후의 얘기지만 어쨌든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면 정보교환 차원에서 중요하니까 하시는데, 대신에 실무적으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실무협의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이 아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거예요.

○김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동준 위원

저도 김아진 위원님하고 비슷한데요. 분담금

500만 원이긴 하지만 혹시 여기 내용 보셨어요?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거기가 활동사항은……

○조동준 위원

주요 활동사항만 보면 진짜 가입 안 해야 되고. 세부 활동사항 혹시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저희도 세부 활동 사항은 않고요. 거기에 10대 과제라고 해서 거기서 다루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동준 위원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이런 협의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커다란 목적이나 목표들을 세우고 하긴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그런 목적과 활동사항들에 맞게 내실 있게 하는 데들이 거의 유명무실하죠.

그리고 사실 분담금이 개별적으로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 금액들이 모여져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후에 저희들한테만 보고되는 얘기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저는 지방정부협의회가, 제가 뭐 궁금해서 어떤 단체인가해서 들어가서 홈페이지도 보고 했는데, 진짜 주요 활동사항 외에 별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설립된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조동준 위원

오히려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초창기에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당초에 그런 큰 고민 없이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핵심적인 건 김아진 위원님 얘기하고 비슷하지만 우리가 도농 간에 어떤 교육격차나 문제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뒤에 장학기금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교육재정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지원을 못해서 장학회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굳이 형식적으로 남들 하니까라고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거의 그런 방향으로 돼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가입이 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죠.

○조동준 위원

아니, 저희가 역할 하는 이 공간이 여기 안에 별로 없고 이 단체가 실제 구체적으로 좀 뭔가 일들을 하겠다라고 표방하고 움직이는 데가 아니라는 모습을 봐서 그러는 거죠.

내용을 살펴보진 않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그동안 활동실적은 거기까지는 보지는 못했고, 지금 초장기라.

○조동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동의가 되면 내년도에 타 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입을……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50여 개밖에 활동 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여서 활동의 상이 정확히 안 잡혀있는 속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입하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활동사항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 동의를 해요. 하는데, 지금 도농 간에 교육에 대한 고민이 정반대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질 좋은 교육하고 서비스가 좋은 교육하고 이건 다 똑같겠지만 각 지금 경기도나 서울하고 우리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동떨어진 건데 우리가 지금 분담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서천군 같은 이런 낙후된 지역에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우리 의견들이 반영되고 우리 의사들이 전달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 위원님 얘기에 나는 공감을 해요. 하고, 이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지자체 단체장이 회장이 돼서 우리지역에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회의에 나가서 우리 주장이 우리 서천군의 의견이 반영된다든가……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상으로 그래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가 이런데 오히려 이것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아까 조동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과연 지난 동안에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떤 지역활동을 했는지 세부활동은 뭘 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과장님 역시도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내부사항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타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교육이 열악한 쪽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우리쪽에 대해서 용역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52개 회원 지자체가 있는데요. 이게 사무국에서 회의를 할 때는 각 회원 가입 한 그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거예요, 교육에 관련해서. 그럼 우리 서천군에서는 대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통해서 교육부나 이런데 건의, 또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다양한 루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도시는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것이 아무 시군보다는 훨씬 여유로우니까 그런 대도시에서 시군지역을 지역정서나 이런 걸 감안해서 거기서도 많은, 뭐라고 할까, 도움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아마 이걸 함으로써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나 아니면 교육경쟁력 제고에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

○김경제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지금 합당성을 제대로 말씀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제안들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용역들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도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조사가 부족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고 기대서……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우리도 정보도 얻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구조상 지금 이백삼십몇 개 지자체 중에서 사실은 50여 개 단체에서 지금 서울·경기들이 다 편중되어 있는데, 과연 이번에 얼마나 가입을 하려나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도농 간의 격차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여기에 맞게 자체적으로 우리도 나름대로 조율을 해야 돼요.

○김경제 위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자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이나 우리 지역에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을 합해서 우리 내부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해서 우리의 숙제를 푸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우리가 자체적으로 숙제를 풀 수도 있고요. 그 숙제를 여기 협의회로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논의해서 거기서 대응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김경제 위원

52개 지자체에서 500만 원씩 내서 사무처장 월급 주고 회의하고 하면 뭔 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지금 뭘 했나도 의심스러운데 진짜.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뭐 회장국은 오산시가 회장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조동준 위원

과장님! 아무튼 사무총장도 단체장이고 그렇긴 한데, 아니 이게 우리지역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럴 일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아니요, 위원회라는 건 우리가 교육위원회 같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한 그런 제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다 우리가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조동준 위원

그냥 소속자치단체가 하나로 다 참여를 하는 거지. 전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회장, 부회장, 임원을 뽑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거기야 그렇죠.

○조동준 위원

우리지역하고는 상관없죠, 조직이.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우리도 협의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김경제 위원

여기 협약에 들어갔을 때 별도의 협의회가 필요하냐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건 여기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으니까 교육청과 우리가 수시로 기관간 협의도 해서 교육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풀고, 안 되는 부분은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우리가 교육부를 지자체 혼자 건의하는 것보다는 여기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나 제안을 하면 그게 더 힘이 받는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지켜봐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처럼 과연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는 고민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우리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냐? 이런 의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여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중·고를 중심으로 해서 더 지역의 인재를 더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대학 진학을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는 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옛날보다는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빈곤자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앞으로 서천사랑장학회하고 많은 토의가 있겠지만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출연금이 총 얼마나 있어요, 현재?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우리가 현재 장학금이 한 127억 정도.

○김경제 위원

그럼 목표는 얼마까지 할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저희들이 서천사랑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보면 200억 목표까지 달성 시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200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추후에는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도 무너져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학금을 너무…… 왜 그러냐면 기금조성 하는데만 너무 매몰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사실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추후에 진짜 우리가 학생들이 진짜 숫자가 적어지고 우리가 장학금 지급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좋은 제도를 실시해서 학생들이 외지로 못나가는 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고.

이게 기금 역시도 사실은 우리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회의를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급방법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두 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서천사랑장학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지원하는 과정에서 13개 읍·면이다 보니까 기금조성 할 때에는 학생 수가 있건 없건 간에 읍·면에서 많이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신두 위원

이제 100억 돌파하고 해서 지금 12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들이 보면 13개 읍·면에 면단위에 회장이라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신두 위원

이런 분들이 운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운영원이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그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추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여기 보면 고교 같은 데 우수기숙사 지원 같은 것도 하고 고교 무상 교복 지원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신두 위원

이런 것들을 편가르지 않을 수 있게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중학생도 겸해서 해줄 수 있게 장학금을 그렇게 하면 면단위도 괜찮게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천이나 장항에서 대학교 나온 애들 장학금을 주는 것과, 읍·면에 대학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도 이렇게 해서 이런 기금을 장학회에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한번 건의 좀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알았습니다.

○강신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강신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 위원

출연금이 지금 서천사랑장학회에 기금이 127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군에서 조례에 보니까 200억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아진 위원

그 200억이라는 목표 금액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그때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아마 그건 서천사랑장학금이 당초에는 아까 강신두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 목표로 했다가 100억에서 또 200억 목표로 했다가 그런 측면에서 200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출연한 기금은 거기서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

록 그런 부분도 했는데 하여간 200억 목표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아진 위원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목표가 있으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100억이 넘어가면서 그래도 세부적인 계획이랄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이랄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어떤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모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계획도 없이 그냥 돈만 모은다고 해서 이게 활용되거나 이렇지도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군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교육 관계자 간담회도 했거든요. 교육청, 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 위주로 학부모까지 거기서 다양한 의견은 제시가 됐어요.

그 부분에서 진짜 긍정적인 그런 제시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 기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이걸 더 어떻게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거기서 우리가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아진 위원

네, 그런 계획이 나와야…… 사실 이 출연금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 때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볼 때 기금 1억씩 나가는 게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굳이 군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장학금 주면 좋은데 그게 실제 저희들이 보면 한 2억 정도가 매년 적립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2억 정도.

○김아진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그건 1억 포함했을 때 2억이거든요. 그래서 적립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자칫 잘못하면 원금까지 손댈 그런 소지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검토해서 기금은 기금대로 가고 이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아진 위원

장학금 지급이야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금에서 이자분을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 1억이 줄고 말고에 대한 부분은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군에서 해마다 나가는 것을 앞으로는 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만약에 더 큰 목표가 있어서 1억이 부족하다면 2억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동준 위원

장학사업 관련해서 질문 많이 드렸던 건데 지금 그럼 127억에서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조동준 위원

대략 어느 정도예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뭐가요?

○조동준 위원

이자.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이자가 지금 보통 2억 4~5천 정도 되거든요.

○조동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총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그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저희들이 장학금 한 3억 정도 나가요. 부족분은 우리가 후원금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일부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후원금이나 이자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억 한 4천정도 되더라고요.

○조동준 위원

합치면?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합치면.

○조동준 위원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리고 세출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교육사업이나 장학금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한 3억 3천정도. 그러니까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적립이 된다고 보면 되죠.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한 5억 정도 되고 2억 정도는 적립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죠, 적립이 되는 거죠.

○조동준 위원

내년 정도면 129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죠. 13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동준 위원

지금 민간 장학회 회원들이나 해서 장학금으로 조성되는 금액하고 우리가 1억씩 넣는 거하고 어느 정도 돼요? 민간에서는 후원이 많이 들어와요?

민간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은 그러면 전액 다 장학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그중에 비율로 합쳐지나요? 1억 정도는 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러니까 민간에서 들어오는 후원금도 한 1억 정도는 적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 1억도 적립이 되는 거고.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금액으로 따지면 민간에서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죠. 적립되는……

○조동준 위원

이자가 2억 정도 되는 거고, 현재 수준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조동준 위원

총 5억이면 우리 1억, 민간 1억 적립되고, 갭이 한 1억 이쪽저쪽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조동준 위원

민간이 그래도 많이 후원을 하시네요, 아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사실 이런 거예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하고 서천사랑장학회 이사장이나 총무이사 이렇게 해서 한번 다니려고는 했었어요, 기업체를 몇 군데. 그런데 시기상 다니기가 좀 어려워서 못 다니는데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많이 논의가 돼요. 올해는 좀 적었더라도 내년도는 좀 다녀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부분도 많이 다뤄질 겁니다.

○조동준 위원

김경제 위원님도 그렇고 김아진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원금 200억을 목표로 저희가 계속 적립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을 깎아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건, 물론 뭐 금액이 200억이 되면 이자가 더 많아지니까 그만큼 쓸 돈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200억을 모으는 동안 김경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지역의 교육이 무너지면 200억 모으는 게 아무 의미 없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당초 100억 목표로 우리군 같은

규모에서 100억을 조성한 것도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걸로 인정을 해보면 이제는 좀 원금에 너무 국한할 필요 없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래서 엊그저께 교육관계자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원금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더 효율적인 장학사업이 있으면 학교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더 과감히 하자는 그런 얘기도 제시는 됐어요.

○조동준 위원

앞에서 우리가 협의회 얘기했지만 연관돼서 그런 일들에 대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장학사업에 대한 아이들 인재육성에 대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간담회하고 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최종적인 정책으로 잡고 그 잡은 걸 저희한테도 제시해 주고 그걸 가지고 이런 협의회도 참여해서 협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시겠다고 하시고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방향을 저희한테 제시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조정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을 변화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 방향에서 또 저희가 첨언할 수 있는 의견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의견들 반영해 주셔서 우리 교육정책을 좀 새롭게 적립하는 것으로 시급히 해주시면…… 이런 협의회 좋죠. 좋은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조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이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

8. 장항도시탐험역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1시41분)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항도시탐험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무협 문화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 제안설명 ---

○위원장 이현호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무협 문화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장항도시탐험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아진 위원

지난번에 위탁하려고 모집공고를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됐다가 마지막에 렌즈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작년에요?

○김아진 위원

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위원

이번에도 새로 모집공고를 내면 렌즈에서 다시 위탁받을 가능성이 많죠? 재계약을 하실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재계약은 아니고 일단은 위탁공고를 낼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또 할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의지는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김아진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 선정업체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의지 있습니다.

○김아진 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이전에 직영으로 할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를 마련해 놨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계획서나 이런 거 받으실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게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새로운 사업들도 계속 투입이 돼야 이게 더 많이 활발해지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위원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조금 고려를 해보라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장항 시설에 대해 용역 중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끼리는 장항을 일단 보면 '도시탐험역에 우선 가서 장항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듣는다' 그래서 장학도시탐험역이 입구가 되는 거죠, 장항에 대한. 그런 설명까지 거기서 다 하는 거고 나머지 시설들은 뭐 특산품이니 카페니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도시탐험역만 거기만 있는 걸로 일단 회의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과장님?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일단 평가상은 잘 되고 있고요. 거기 팀들을 만났는데 그 팀들도 지금 본인들도 대단히 성의는 있다고 봅니다.

○김경제 위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도시탐험역을 왜 했나를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얘기들을 하세요. 지금 2천여 명이 이용 했다면 하루에 20명 남짓한 거예요.

그리고 원가계산도 보면 직영과 지금 위탁이 보면 얼마 차이에요? 100만 원 차이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김경제 위원

100만 원 차이도 안 나고, 지난번에 장항공공도서관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에 관해서 전부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전거 대여소 운영조차 한 번도 못하고 있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거기는 지금 지난주에 갔을 때도 한산 애니고인가요, 거기서 시험 끝나서 학생들이 와서 자전거 빌려타기도 했답니다.

○김경제 위원

어쩌다 한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은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도 하고 있어서……

저는 3년 위탁하는 것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전부 위탁을 연기한다든가 재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갈 것인지 하나하나씩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과장님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관리자 1명, 사무원 1명, 기간제 2명 이 자체도 필요한가도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진짜.

지금 카페운영은 별개로 되고 있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위원

카페운영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환수되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카페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카페운영방식을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시설팀장 김경미

카페운영은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직원이 하면 수입금은 어떻게 해요?

○문화시설팀장 김경미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민간위탁이 들어간 상태여서 아직 정산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김경제 위원

대체적으로 그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전혀?

○문화시설팀장 김경미

민간위탁이 5월부터 들어갔는데요. 조직개편이 돼서 7월 1일자로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김경제 위원

들어올 때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시설팀장 김경미

코로나로 문을 계속 닫고 있어서 수입금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올해는.

○김경제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0년 12월까지만 연장을 하든…… 위탁이 뭐 어차피 5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위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1년으로 다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를 진짜 팀을 만들어서 갈 건가 아니면 직영으로 갈 건가 아니면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건가 운영전반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위탁을 2021년도 12월 30일까지만 하자는 얘기예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그거는 지난번에 공공도서관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은 거의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년으로 올렸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1년을 도서관을 했기 때문에 장항도시탐험역도 1년으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1년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확고하게 지켜주시면……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지금 거기 위에 누수되는 부분은 완전히 다 개선이 됐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공사 다 완료했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금 이 위탁을 주면 건물주변, 우리가 건물주변이라는 게 건물에서 뭐 10m, 20m 떨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변 또 광장 이런 데 보면 그 관리는 별개로 해야 돼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저희들이 그거는 협약서에 좀 있는데요. 미디어센터도 저희들이 한번 공문까지 발송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소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공문 내보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잔디광장을 관리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문 밖에는 하나도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풀이 잡초가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광장에 진짜 한 10분, 5분만 할애하면 될 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리고 건물주변 바로 5m, 10m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변 2~3m 주변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은 별도의 지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화단을 매일 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협약서에 관리 내용이 있고요. 본인들이 소홀해서 그러는데 주지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이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항도시탐험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시 합의한 대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서천군수가 제출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항도시탐험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서천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9. 2021년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2021년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

(군수제출) (13시30분)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희랑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 제안설명 ---

○위원장 이현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랑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지금 출자하는 건 빼고요, 1억 출연하는 건 8억 9,300으로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운영비.

○조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순환경제센터, 마을만들기센터, 도시재생센터는 기 운영 중에 있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조동준 위원

상권활성화센터만 새로 세팅을 해서 결합을 시키는 내용인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조동준 위원

지금 뒤에 관계법령 이렇게 해놓으셨지만 이게 소모성 사업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교부하지 왜 출연금으로 주죠, 이건?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이 3개의 기 운영 중인 센터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구조잖아요,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지금 비영리기관, 순환센터들은 대부분 법인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냥 비영리기관 형태. 그래서 보조금이 가능했고, 정식재단이 되면 본예산에 예산목이 출연금으로 이렇게 목이 잡히더라고요.

○조동준 위원

우리 예산에?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본예산에 재단 별도의 목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잡히는 거고. 지금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그거는 보조사업으로,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죠.

○조동준 위원

법령도 그렇고 자체 조례도 그렇고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그리고 '우리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 놨잖아요.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래서 본예산에 재단에 출연금으로 각 센터별로 올해까지 통합을 하기 쉽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출연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조동준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목이 출연금이라고 들어가요. 예산에 세울 때 목이.

○조동준 위원

그럼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 이건 뉴딜 사업 확정됐잖아요.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은 별도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재단에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기본 운영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죠.

○조동준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인건비, 운영사업비여서 이건 출연은 되지만 실제 자체적으로 다 사용되는 돈이잖아요? 출연해서 기금으로 적립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렇죠.

○조동준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출자출연인 경우에……

○전문위원 허철현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조동준 위원

예.

○전문위원 허철현

조례가 기본재산 조성이 아니라 재산조성으로 지난번에 수정을 하면서 광범위한 범위에 되어 있고요. 기본재산은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 성격이고 지금 동의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재산에서 지금 인건비가 들어간 최소 운영경비는 운영재산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말씀하셨던 국도비 보조금이나 사업성 성격들은 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이게 명칭이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본예산 갈 때 지역재단에 이 운영재산이 출연금으로 잡히도록 되어 있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게 어디에 잡혀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법에.

○조동준 위원

어디 법에?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아니, 예산목이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예산에.

○조동준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조동준 위원

아무튼 그와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는 게 따로 있단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지금 어쨌거나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순환경제센터하고 상권활성화센터가 해당되고 마을만들기는 건설과고 도시재생센터는 도시건축과인데 각 과에서 어쨌거나 지역재단으로 각자 출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조동준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개별 사업별로 개별 내용으로 별도로 보조금 신청을 해서 보조신청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출연의 의미는 보통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지금은 순환센터라든지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는 각 센터에서 군에 보조요청을 하면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제는 이게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조동준 위원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조동준 위원

기존에는 아무튼……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기존에는 그냥 '순환센터 운영비 얼마' 이렇게 딱 했는데 지금은 이게 예산에 인건비, 사업비 쭉 다 세부내역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조동준 위원

그럼 다음 예산서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각 실과별로 해당 경제과랑 건설과, 도시과에 별도 묶으로 출연금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조동준 위원

이 센터이름으로?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지역재단의 이름으로 잡히는 거죠.

○조동준 위원

그건 건설과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사업비가 아니고 거기에 그냥 건설과에 지역재단……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 사업명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조동준 위원

그렇게 잡힌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이거를 저희도 한번에 저희과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인건비라든지 보수가 다 달라서 이게 각 부서별로 당분간 통합될 때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준 위원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경제과에서 통합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딱 지역재단운영비 통으로 출연금으로 잡히면 상관없는데 사실은 건설과에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여기 마을만들기는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렇죠. 도비.

○조동준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잡혀야 될 것인데 거기는 말씀대로라면 지역재단 출연금으로 건설과에 별도로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렇죠. 지역재단에 마을만들기사업 운영비로 잡히는 거죠.

○조동준 위원

그냥 기존 방식대로 건설과에 마을만들기사업 관련된 보조사업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굳이 출연금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이게 재단이 되면 공익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세출예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세하게……

○조동준 위원

나머지는 또 보조금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른 건 보조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지속가능재단으로 출연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각 부서별로.

○김경제 위원

부서별로?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김경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부서별로 하는데 지속가능재단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순환경제센터에다 하는 거예요? 배정을. 회계처리를.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각 배정은 재단 안에 센터별로 가되, 집행은 재단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회계는 일원화 돼서 집행이 돼야 되죠.

○김경제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회계가 삼원화 되는 거 아니에요, 삼원화?

출연을 하면 거기도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각 부서에서 각 팀이 있는 것처럼 그 경영지원팀에서 집행은 총괄적으로 나가야 되죠. 각 센터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김경제 위원

이게 지속가능지역재단에서 통으로 받아서 거기서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센터별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출연을 할 때.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물론 구분은 각 센터별로 되지만 돈은 재단에서 한 번에 받아야 되죠. 각 센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각 부서에 별도예산 세우고 돈을 줄 때는 법인 통장에 한꺼번에 들어가야……

○김경제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2021년도 예산안을—지금 뭐 예산은 아니지만—안을 보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김경제 위원

지속가능재단을 만들었으면 지속가능재단에 이런 것은 '인원이 몇 명' 이렇게 해서 통으로 가야 회계처리가 돼야 재단이 쉽게 얘기해서 장악력이 있지. 그렇잖아요. 따로 따로 목이 순환경제센터로 가고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가면 실질적으로 이원화 삼원화 돼서 오히려 지금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저희가 이 표에는 구별을 해놓은 이유는 각 센터별로 인건비 체계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고 이거는 나중에 통으로 되는 거거든요.

○김경제 위원

그러면 어차피 건설과를 거쳐야 되고 어차피 지금 지역경제과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이 아니고 재단에다 출연하는 기금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공모사업을 했다 하면 바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예산이 저기로?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만약에 재단에서 공모사업하면 재단으로 가고 만약에 군에서 한 거는 군에서 대행사업비로 재단에 넘겨줘야 되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김경제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분류할 이유가 뭐예요, 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지금 업무가 모든 사업이나 공문은 내가 하고. 그거 아닙니까? 실과에서 하고 재단에다 이 사업만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게 예산만 세울 때는 각 부서에 세우고 법인통장에 예산이 다……

○김경제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했어요. 20억짜리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업을 지속재단으로 넘겨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김경제 위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넘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때는 보조금으로 넘겨야죠.

○김경제 위원

보조금으로?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김경제 위원

그러면 그 당초의 예산은 지역경제과의 예산으로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보조사업에 매칭사업비 포함해서 넘어가는 거죠.

○김경제 위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렇죠.

○김경제 위원

그렇게 한 것을 다시 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김경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재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렇게 하면 더 불편하지 오히려. 그렇게 하

면 현재 이 과에 있는 인원은 인원대로 그 일을 해야 되고 업무는 좀 줄어들려나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게 아니고요. 각 센터별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주는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그래서 올해는 이걸 지금 따로 따로 부서별로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일단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서 올해까지 하고 이게 통합이 되면 내년부터는 통으로.

○김경제 위원

아니, 그리고 보수체계가 따로 따로 가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묶어서 가야지.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게 저희들도 제일 안 맞았던 건데.

○김경제 위원

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으면 집행부가 그 결정을 않고서 그러면 그 체계를 그대로 가겠다?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데 누구는 예를 들어서 150만 원 받고, 누구는 170만 원 받고, 180만 원 받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지금 순환센터는 순수 군비로 하는 거고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은 이미 지침으로 인건비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올해에 맞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경제 위원

기존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수체계는 우리가 규정을 해서 지속가능재단에서 보수체계를 해서 단일안으로 가져가야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도……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가 되게 보수체계가 높거든요, 순환센터보다. 그리고 인건비 비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서 우선 올해 통합하는 과정에 이게 협의가 잘 안됐던 부분이라 올해까지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차후에는 통일시켜야죠.

○김경제 위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를 않고 지속가능재단을 출발해 놓고 '내년에 가서 정리합시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올해는 맞추기 어려웠었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요구만 하지 쉽게 얘기해서 회계처리는 지속가능재단에서 한다 이 얘기죠?

따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일단 예산편성은 군에서 세워서 이거를 재단에 출연을 하는 형태죠. 돈을 쓰고 사업하는 것들은 재단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김경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센터가 인원이 줄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것이 지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업무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출에 대한 거나 회계처리는 실제 재단에서 하고 센터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요구만 해서 그때그때 결재만 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걸 정확히…… 그런 시스템이냐, 사업이 무슨 사업이 하나 있으면 그걸 통째로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너희가 알아서 쓰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같은 개념인데요. 군에 부서에서도 각 팀별로 사업을 해도 집행은 주무 회계부서에서 하잖아요? 재단도 똑같은 거거든요. 각 센터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모든 회계지출 관리는 경영지원팀에서 포괄적으로 나가는 형태죠.

○김경제 위원

하여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나는 과장님 말씀하는 게 정리가 안 되게 들려서……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지금 그러면 재단은 공무원들은 이번에 발령 다 났죠? 아직 안 났어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아직 자치행정과로만 되어 있고요. 아직 정식 재단 법인허가 아직 안 나서, 바로……

○김경제 위원

현재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어서 나가는 게 있지만 정식발령은 안 났다?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김경제 위원

법적인 마무리가 돼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김경제 위원

그러면 그 업무들은 지금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간단할 수도 있고 한데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일안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역경제순환센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올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로 예를 들자면 지속가능재단에서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공개모집형식이든 아니면 이 인원을 계속 채용을 하든 그렇게 가서 정리가 돼야지 임금 격차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래 하향조정은 전혀 불가능하고 상향조절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렇죠. 어차피……

○김경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하는 거야 서류 맞춰서 가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마무리 지으셔야지.

그걸 마무리 짓지 않고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예산심의 할 때 지역경제센터는 '인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인데 얼마가 있고' 편차가 있으면 의회에서는 그걸 못해주는 거죠.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지속가능재단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김경제 위원

아니, 고민할 일이 아니고 이건 해결을 해야 한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아니, 맞추면 그거는 제일 많이 받는 쪽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침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김경제 위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지금 지역경제순환센터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12월말로 지금 위탁을 줬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지속가능재단을 통해서 새로 하는 방식으로 가야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래서 저희들도 노무사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런 체계는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물론 그런 것도 고민하셨겠지만 그런데 이 체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기 문제도 있고. 임금규정도 앞으로 재단에서 임금규정이 정확히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되지 그것이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법적으로 지금 설립허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지금 정관에 도 협의가 들어갔고요. 11월말이나 12월 초쯤이면 허가증은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 그거야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인건비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운영비도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위탁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가계산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말아요. 전년도에 사용한 것을 비교분석해서 자료들을 주셔야 이게 지금 잘 돌

아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도 그걸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지……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자료는 제가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렇게 하고.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하셔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추가질문 조금만, 그 출연금을 정산을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정식회계사를 통해서.

○조동준 위원

우리 군한테 정산보고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1년에 한 번씩.

○조동준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조동준 위원

출연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그거는 재단 정관에 매년 공인회계사한테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아까 보조금 형태는 별도의 보조금 정산을 저희가 받는 거죠.

○조동준 위원

제가 그래서 아무튼 다시 오늘 회의 끝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연금은 성격적으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법인단체의 중요한 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보조금인 경우에 보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산팀하고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는 더 말씀 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출연기관 자본이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목이 출연금으로……

○조동준 위원

우리 예산 저기상?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거기에. 출연기관 자본이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이게……

○조동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인데 정산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그렇죠. 이거는 운영비 성격이니까 해야죠. 기본 출연금은 그냥 있는 거고.

○조동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회의 끝나고 다시 논의할게요.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 위원

저도 지금 비슷한 얘기인데요.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은 의회에서 그냥 예산심의 때만 심의를 하고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정산과정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심의 단계가 한 단계가 빠져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연금은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관한 것들은 여기 조례에도 보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비에 관한 부분은 따로 떨어뜨려서 보조금 형태로 가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오늘은 출연 동의니까 예산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검토를 하시고 저희가 심의할 때도 그 자료를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예, 그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이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4시13분)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 제안설명 ---

○위원장 이현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1항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보성환경에서 위탁을 줬을 때 문제가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게 지금 총 우리가 감사한 횡령금액이 얼마였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2억 3천 정도.

○김경제 위원

하여튼 그때 했던 것이 변함이 없으시죠?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감사금액이요?

○김경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감사금액이 조금 수사기관하고 상이한 것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종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해서 조정절차는 아직 감사계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20억 이상 된다고 지금 고발도 하고 이런 거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다시 추가적으로 고발했다는 거 들었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럼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었던 사항으로 볼 때는 수사기관이나 저희들이 감사에서 한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제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서천군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3~4억 된다” “4~5억 된다” “7~8억 된다” “12억 된다” 지금 20억이 넘는다고 인터넷상에 올리고 해서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김경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 그때 했던 분들하고의 문제도 그렇지만 서천군이 계속 불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불신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위원

거기에 대한 서천군의 입장을 정확히 발표를 해야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진짜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군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함부로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무단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일일이는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서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가 해본 결과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뭐 상황에 따라서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견해에 따라서.

그런데 이건 차이가 나도 엄청 나는 거 아니에요? 20억이 횡령이 될 수도 없는 구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그렇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최소한 그분들 싸움에 끼어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군의 입장을 빨리…… 감사원에 의뢰했으면 정확한 판단을 얼른해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기획실하고 한번 긴밀히 상의를 해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연치 않게 이런 저런 서류를 봤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읽어보면 군을 신뢰할 수 없어요. 좋은 용어 다 갖다 써서.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제도적 보완은 마련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김경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 싸움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군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어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잘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현재는 문제가 다 개선이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개선이 됐습니다.

○김경제 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 지난번 같은 예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4시24분)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순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 제안설명 ---

○위원장 이현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순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 위원

우리가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없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아진 위원

없고, 앞으로 계획도 불분명 하고요. 그런데 권익위에서도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설치계획도 사실 불분명한데 이 조례 정비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그래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권익위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라' 이건 아니고 '관련 조례에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내려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아진 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기금 부분에 대한 조항만 몇 개 삽입을 하면 권익위 권고사항에 충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길고 정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보면 컨설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금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을 기금에 관한 조항만 이 관련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봐서 그 두 가지 조례를 정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있지도 않은 기금에 관한 조례안을 따로 두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여져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의껏 개정안을 마련해 오셨는데 일단은 마련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정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2개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려우시면 그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답변 드릴까요?

○김아진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작년도 말 기준해서 옥외발전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243개 지자체 중에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78개 그리고 운영하는 데가 165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옥외발전기금을.

그런데 사실은 행안부에서는 옥외발전기금을 운영해서 광고물 업무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시군에서 이걸 운영하지 않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반회계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금으로 보내서 별도의 기금을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예산회계처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들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보내야 되고 기금을 또 정산해서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사실은 공무원이 생각하기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지 않았던 거고요.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모든 지자체가 옥외발전기금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옥외발전기금을 운영해야 되고 기왕에 만든 조례를 없앴다가 다시 또 기금을 운영할 때 다시 만드는 건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돼서 개정안에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김아진 위원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진흥 조례에 그 조항을 '3장 기금'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라는 것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아진 위원

그다음에 점차 추세가 오히려 기금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발전기금 나온 것을 일반회계처리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일반회계처리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기금으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아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조례가 있는데 없애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굳이 필요없는 지금 운영하지도 않고 하고 있지도 않은 조례를 굳이 이렇게 유지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금에 대한 정의를 이 진흥조례에다가 담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까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78개라고 했잖아요. 또 조례는 있습니다.

○김아진 위원

조례는 다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고민하겠습니다.
○김아진 위원
최근에는 강원도나 이런 데는 다 합쳐서 바꾸고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추세를 보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게시대 관리는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하시기로 했으니까 지켜보면 되고요.
우리가 옥외광고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가 불법광고물 철거도 포함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보면.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렇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분들이 해서 걸은 걸 그분들이 수거해서 단속을 한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자기네들은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하죠, 합니다.
○김경제 위원
그런데 이 문제의 개선방안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게 사실은 옥외광고물 때문에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업무의…… 지금 뒤에 안 팀장도 있지만 실제로 안 팀장 실무자가 불법광고물 정비하러 밖에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불법광고물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민간위탁의 회원사들이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다는 것은 사실 도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또 완전히 100% 차단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또 우리 지역에서 다 제작해서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위탁비용 중에서, 물론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겠지만, 그 불법광고물 철거와 관련해서 비용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 부분은 위탁비 중에 비율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제 위원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네.
○김경제 위원
우리가 사실은 불법현수막이 제대로 철거가 제때 제때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걸었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떼기도 그렇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다 동의가 가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요즘 생명에 대한 존엄함이라고 할까 식물이나 동물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경제 위원
그런데 곳곳에 가보면 가로수나 나무에 지정된 나무에다 많이 걸어요. 거기가 잘 보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경제 위원

가서 보시면 수많은 끈들이 있어요, 묶어놨던 게. 앞에만 잘라서 놔두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렇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것이 수년이 지나서 어떻게 묻힌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삭아서 떨어진 데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현수막이 붙어있는 거보다 더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이 수거해서 보상하는 제도도 우리가 필요하다, 큰돈은 아니더라도.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경제 위원

그렇게 하면 많이 근절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오후면 걸었다가 월요일 오전에 철거를 해요. 그게 아주 아파트 같은 데 신축이나 분양하는 데서는 보면 일률적으로 고정인원들을 써서 그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어디 표시해서 다니면서.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안 보일 때 빨리 걸고 빨리 떼어가려다 보니까 곳곳에 그렇게 지저분해요, 보기 흉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불법광고라고 다 폄하해서 무조건 철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읍내 입구라든가 관광지 입구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 우리가 보상제도를 해서 장기적으로 하자는 것보다 그걸 검토를 해서 그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소득도 만만치 않아요. 참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탁을 주시면서 그래도 광고협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군도 그렇게 얘기하면 군에서 한 것도 여기 저기 걸려 있고 '그거는 불법이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익성을 띠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근절이 되도록 서로 이번 위탁을 하면서 재계약을 하면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서천군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4시50분)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천군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귀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 제안설명 ---

○위원장 이현호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귀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천군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입찰문제 때문에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예, 맞습니다.

○김경제 위원

지금 서천군에 고소작업차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지금 4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당초에는 1개 업체가 하다가 이렇게 변해서 권역별로 계속 늘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천군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목적에 자꾸 해마다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자꾸 높아져요. 그건 알고 계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여러 개 업체들이 참여하다보니까 웬만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예.

○김경제 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신청했던 업체가 몇 개소 정도 돼요? 몇 업체정도 돼요, 대략?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관내에 전기차 갖고 있는 업체는 대부분이 다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 지금 가로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읍내, 시골에서 말하는 시내권은 그래도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여름철에 가보면 모기나 날파리가 꽉 쌓여있어도 치우는 법이 없어요. 지금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분간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안 하나드리면 우리가 5개 권역에서 지금 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예, 지금 현재는 4개 권역입니다.

○김경제 위원

이제 5개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를 해서 최하위 업체는 1년 동안 입찰을 못 보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점수제로 해서.

경쟁심이 적어졌어요. 금액도 적어졌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일부분이 위원님들이 개입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 줘라'라고 하면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때제때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리하는 사업소에서도 뭐가 있냐면 LED로 교체가 필요한 곳조차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구가 나갔든가 문제가 생겨서 불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 전기세는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환산에서 주고 있죠, 일부는?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예.

○김경제 위원

'등 x 얼마' 해서 환산해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쓰지도 않고 물어주는 거예요. 관리비를 주고서도 관리가 안 돼서.

또 농사철 같은 때 보면 일부긴 하지만 강제적으로 일부분 소등을 해요. 알고 계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하게 전기세를 납부하는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주민들이 지금 농사철에는 켜기를 원하지 않고 키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계속 요금을 내고 있어요, 가감을 받고 있어요? 지금 가감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예.

○김경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집 비워놔서 아무것도 안 썼는데 전기요금 한 5,000원 나오면 따지러 갑니다. 그렇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관리체계도 5권역으로 나눠서 주되 5권역 중에 쉽게 얘기해서 주민 만족도를 해서 제일 하위 업체는 최소한 1년이든 제한하는 이런 방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업체 중에서 5개 업체 중 최하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검토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통 가로등이 나갔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실질적으로 급한 데예요. 어디 가보면 뭐 일주일 이렇게 늦어도 별로 말 없는데도 있어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는 안 그러지만 일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이번에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천군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천군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위원장 이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5시20분)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범수

--- 제안설명 ---

○위원장 이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성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이정성입니다.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축사업이 지하3층 지상1층 규모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터가 앉을 자리가 서쪽 끝에 있는 자리거든요. 옛날에 논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약지반이고 옛날 습지지역이라 사실 지하로 짓게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기본계획에는 지하3층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실시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그쪽 토지형질 여건을 봐가면서 지하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해수부에다 얘기했지만 실시계획 때 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는 안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실시설계 때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고요. 이게 지금 산업단지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곳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맞아요.

○김경제 위원

그리고 암반이 얼마에서 걸리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하3층 지어서 절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최소한 의회에 올라올 때는 기초적인 조사는 거쳐서…… 지하3층하고 지상1층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김경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검토를 한 이후에 이런 자료들이 올라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원래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보면 지반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반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지하문제는 아마 못 짓는 걸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지상으로 다 올리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시공사에 따라서 아니면 설계자에 따라서 설계를 달리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하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저는 죄송하지만 기계실조차 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군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막연히 잘못해서 우리가 추후에 사업비도 훨씬 더 들어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리고 지금 일정은 정확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일정은 일단 그 뒷장에 보시면 지난달 10월 23일날 충남 공공건축 심의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 결과는 이송을 받았고. 설계공모가 11월 5일날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사가 12월 중에 아마 선정이 되게 되면 12월부터 실시설계가 용역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착공은 내년 한 10월정도, 준공은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설계공모가 나갔으면 설계지침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나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나갔습니다.

○김경제 위원

지하에 3층 지상에 1층 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나갔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이게 도 건축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요. 지하나 지상 이것은 없고 스페이스 공간에 뭘 넣을 것인가 이것만 건축기획만 아마 지침서에 담아져 있답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침서에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지침계획서 좀 위원님들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실시설계 과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천군의 의견이 반영 돼야 됩니다, 이건.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하 1층조차도 관리가 안 돼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3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 12m 이상, 13m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 들어가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거기는 바다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 후에 관리보다도 사실은 물막이 때부터 거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될 수 있고 그 안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동준 위원
이게 오자가 아니고 실제로 지하3층이고 지상1층이라는 얘기예요? 오자가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오타는 아니에요.
○조동준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이게 오타는 아니고요. 해수부 기본계획에 당초 내려올 때 지하3층 지상1층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내려와서 넣은 건데.
○조동준 위원
어쨌거나 기반이 안 좋다는 건 거기도 대략 인지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아예 지하로 파서 뭐 관련된 연구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기본계획을 해수부에서 수립할 때 당초에 지반조사를 안 했어요. 지반조사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설계 들어갈 때 하거든요.
○조동준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지하1층·지상3층 이런 건물들이 기본인데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 토지에 지하3층을 기본계획으로 담는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하로 파고들어가서 지어야 된다는 어떤 특정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건 잘 모르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동준 위원
어쨌거나 인큐베이터 사업이 해수부 사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조동준 위원
운영도 그럼 여기서 하는 거죠, 해수부가?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키오스트를 끼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속 해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동준 위원
우리가 운영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해수부 참여 하에 저희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죠.
○조동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설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설계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조차도 모르면 어떡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
○조동준 위원
저는 혹시 여기가 어쨌거나 파고들어가면 결국에 해양 어떤 토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된 어떤 연구를 하는 해양토질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 건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오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쨌거나 부지는 25억을 주고 저희가 군비로 매입을 하는 거고, 순수 군비로.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한 6,150평 되는데 평균단가 한 37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조동준 위원
이건 어차피 산단 분양가로 저희가 매입을 할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조동준 위원
그다음에 건축사업비는 이 분담비율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국비하고 지방비가 비율이 정해져 있고.

○조동준 위원

저희도 지금 대략적인 사업에 대한 보고는 받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보고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대략적인 보고들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아까 김경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의 전에 주셨으면 좋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두 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이 해양바이오산업을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아니요.

○강신두 위원

땅만 사면 끝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저희 산단에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충청남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 단독으로 운영 못합니다.

○강신두 위원

같이 운영할 거 같으면 저쪽 보령이나 어디로 보내요. 우리 서천에서 하지 말고. 해수부하고 도하고 서천하고 관리하는 이런 건물을 뭐하러 집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왜 그러냐면요, 해수부에서 관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운영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키오스트라든지 큰 연구기관에서 참여를 해줘야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이거에 대해 전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줘야 돼요.

○강신두 위원

관리하는 우리 지자체만 뒷일을 다 해줘야 되는 이런 사업을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강신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아진 위원

우선 인큐베이터사업 유치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기본계획수립까지 갔고 그다음에 설계공모까지 들어갔다는데 지금 이 건물 자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하3층·지상1층으로 지어졌는데도 확인을 못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 이 건물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설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김아진 위원

기본설비는 운영하려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려고 이런 건물을 만들었는지 그게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나와 있고요,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고 대부분이 여기에는 창업 벤처기업들이 주로 창업을 하는 공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해서 산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배치하는 그런 공간들, 그다음에 회의실, 세미나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아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를 알면 그게 지상이어야 되는지 지하여야 되는지 상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지하3층이라고 그러니

까 저도 지금 조동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하3층까지 갔나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 설계공모 할 때 과업지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또 의문이 들고 그러다보니 초반부터 이렇게 기본계획설계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면서 이게 또 제대로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자꾸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이 되면 사업비도 또 많아지고 할 텐데 과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착착착 진행이 되기까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사업 유치하셨는데 유치하신 만큼 좀 더 뭐 해수부라든지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지금 20년 8월달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 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김경제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이 용이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20년 8월은 사전검토고요.

○김경제 위원

사전검토 시에 우리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하로 파야할 이유라는 게 뭐 폭발물 실험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그러면 설계용역은 주체는 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제가 이 건축을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지하3층……

○김경제 위원

이게 뭔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 50이네요, 보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김경제 위원

운영도 사실 우리 군비를 일부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김경제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부담비를 더 내야 할지도 몰라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인큐베이터 이 사업은 주로 R&D사업으로 운영비를 대부분이 다 저희들이 해요.

○김경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제가 지금 건축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한번 하고…… 이게 아무래도 잘못 인쇄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지하 이건 처음 듣는 얘기라……

○김경제 위원

자료 좀 더 확인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류하고 회기 내에 처리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설사 이게 맞으면, 저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산단토지가 분양가가 결정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다 기반조성해서 닦아서 지상이나 이런 기반시설들을 조성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산단을 37만 원 분양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하3층을 파고 들어가면 이 산단 분양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웃으며)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아니, 지금 인쇄가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한데, 오타 같은데 이게……

○조동준 위원

지하를 3층으로 파고들어가서 건물 지을 것 같으면 굳이 비싸게 돈 들여서 조성해 놓은 산단토지를 저희가 살 필요가 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이게 지상3층 지하1층을 갖다가 아마 바꿔서 인쇄가 된 것 같은데요.

○조동준 위원

지금 토지가 6,000평이고 건물이 1,600평 정도 되는데 지하가 굳이 주차공간 부족해서 지하주차장 만들 일도 없는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조동준 위원

확인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산면 주민복합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

기산면 주민복합센터 신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돼가지고요. 예산확보가 안 됐죠?

○재무과장 박범수

예.

○김아진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재무과장 박범수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아진 위원

내년에 그럼 군비부담분만 일단 진행을 하고……

○재무과장 박범수

예.

○김아진 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하고 국비 지금 SOC복합화 사업에 공모사업에 미선정 됐잖아요? 그래서 국비지원도 안 되고 도비지원도 본예산에 안 됐어요.

○재무과장 박범수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아진 위원

예, 확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이 부지는 그대로 예산이 확보됐으면 금방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미뤄져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재무과장 박범수

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군비는 일단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그것도 거의 절차 진행하다보면 시일이 꽤 소요될 걸로 보거든요, 보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상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아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후년까지 가야 될 것 같네요?

○재무과장 박범수

2021년까지.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아진 위원

조금 늦춰질 수도……

○재무과장 박범수

아니요, 그렇다고는…… 아니, 2022년까지.

○김아진 위원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

○재무과장 박범수

2022년……

○김아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됐지만 좀 진행이 늦춰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성의껏 추진하겠습니다.

○김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보건지소 자리는 철거를 하고 그 옆에다 짓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범수

지금 현재 계획은 보건지소하고 의용소방차고까지 철거를 하고 그 뒤쪽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402평방미터하고 합쳐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러니까 건축할 데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범수

빨갛게 표시된 거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고요. 그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하고 그 앞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경제 위원

그러면 지금 제트자로 되어 있는 건요?

○재무과장 박범수

제트?

○김경제 위원

도로 일부분까지 매입하는 부분.

○재무과장 박범수

현재 위쪽으로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아니고 군유지를 표시한 겁니다.

○김경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입하자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표시된 데만 그런 거예요, 그럼?

○재무과장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선으로 그어놓은 부분 있죠?

○김경제 위원

여기는 공유지 지분이고?

○재무과장 박범수

예.

○김경제 위원

이건 지금 보건소 자리고.

○재무과장 박범수

예.

○김경제 위원

지금 하면은 건물은 어디다 지을 예정이에요?

○재무과장 박범수

여기상에서 번지 보이는 건 245에……

○김경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245에', '345에' 얘기해서는 저희들한테 안 맞는 게 뭐냐면, 주신 자료에는 번지수를 볼 수가 없어요.

건물이 지금 연면적이 459면 얼마예요?

1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459면. 그렇죠?

○재무과장 박범수

예.

○김경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정확하게 매입필지가 어떻게 되고 건물을 어떻게 할지, 왜 사야 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주세요.

'잘 해보겠습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굳이 저 뒤에 면적을 사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건 있잖아요, 지금. 충분히.

○재무과장 박범수

뒤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보건지소하고 소방차고 그 자리에 앉기에는 주차장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를 포함해서 건물을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2층 규모인데 1층은 뭐 들어가고 2층은 뭐 들어갈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박범수

2층은 주민자치센터고요. 1층은 큰 게 보건지소하고 소방차고.

○김경제 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도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보건지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거기다가 지상에다가 소방차가 들락날락거리고 그게 맞아요? 우리 냉철히 한번 판단해 봅시다. 토지를 매입하고 안 매입하고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게 주민을 위한 일이에요?

의용의소방대를 거기다 해서 거기서 소방차 들락날락하고 하는데 아래 보건지소하고 같은 복합건물로 지어서 운영이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박범수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김경제 위원

그런 개념은 떨어져있는 개념이고 지금 복합건물이라는 것은 같이 짓는다는 개념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범수

예.

○김경제 위원

같이 붙어서 같은 건물에, 쉽게 얘기해서 벽만 있을 뿐이지 같은 건물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범수

예.

○김경제 위원

지금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랬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보탬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재무과장 박범수

위원님이 현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보건지소하고……

○김경제 위원

아니, 지금은 보건지소하고 소방서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나마. 떨어져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범수

벽이 1m도 안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경제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입구가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재무과장 박범수

복합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입구를 지금하고 틀리다 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김경제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하고 1층에 보건지소를 짓는데 그 복합건물로 의용소방대를 해서 소방차가 들락날락 하는 게 정서적으로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서적으로 맞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것이 붙어있건 없건, 내가 봤을 때는 붙어 있는 것도 띄어놔야 되는데 띄어야 할 것을 왜 붙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매입하고 안 매입하고와 관계없이.

○재무과장 박범수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설명할 때부터 주민자치센터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사실은 그게 미선정이 되면서 추진이 안 됐잖아요.

○김경제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뭐냐면 보건지소하고 주민자치센터는 그렇다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를 거기다 붙여서 더군다나 아래층에 어르신들 치료하는 옆에다가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정서적으로.

죄송하지만 건물 지어놓으면 위원님들보고 미친놈들이라고 해요, 주민들, 잘못하면.

거기에 의용소방대도 짓고 국비니 도비니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이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저를 설득을 시켜봐요, 당위성을.

○재무과장 박범수

지금도 보건지소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붙어 있잖아요. 다만, 출입문이 다를 뿐……

○김경제 위원

지금 축사가 우리집 옆에 있으면 그 옆에 또 지어도 괜찮아요?

○재무과장 박범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김경제 위원

그러니까 붙어있고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기획을 해서 그렇게 짓는 것이 타당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타당해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범수

별도의 위치를 찾아서 짓는다고 한다면 안 붙이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김경제 위원

그러면 안 붙여야죠.

○재무과장 박범수

그러나 지금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좋겠다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경제 위원

하여튼 엊그제 국비, 도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야 뭐 어쨌든. 이건 있어요, 군수님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자고 할 수 있어요. 사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당 실과에서는 그게 왜 타당한지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에서 실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부지를 넓게 활용하자는 거는 동의를 해요. 주민자치센터가 특히 기산면이나 문산, 시초 이런 데는 지금 2층을 짓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2층도 1층으로 뜯어 고쳐야할 형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서 그게 비록 1~2억이 더 들어가고 몇 억이 더 들어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3층 올려서 지어버리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뭔 상관 있어요? 노인분들 2층 가서 치료하면 어떻고.

저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의 말씀이나 의도는 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했느냐? 나는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안 했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맡게 됐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범수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거 충분히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게 뭐냐면 신축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부지 매입하는 것이 조금 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소방서하고 같이 어르신들 지금 치료하고 이런 데하고 의용소방대를 같이 붙여서 짓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주민복합센터를 신축하더라도 의용소방대만큼은 나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건 완공이 됐을 때 혹여 예를 들어서, 물론 바로 옆에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치료 중에 화재가 웽웽거리고 소방차 들락날락하면 그 분들이 치료받겠어요?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매입하고 하는 것까지는 과장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장래를 봐서 더 넓게 활용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재무과장 박범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쪽에 부지를 검토하다보니까 거기에 소방차고가 있어서 같이 복합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하여튼 저도 깊게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아진 위원

지금 기산복합문화센터가 사실은 기획실에서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체 균형발전사업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김경제 위원님도 그렇고……

○재무과장 박범수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아진 위원

지금 이 계획이 세워진 거에 대한 부분과 복합화사업 공모신청하기까지 그 진행과정을 다 기획실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주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라도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협 문화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서천문화관 1단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문화진흥과장 한무협입니다.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준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은 멸실을 하고 증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그런데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도 현장방문을 갈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확정여부에 맞춰서 이것도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상하신 미디어 관련된 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하니까 더 증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러니까 그 문화관을 위한 보조건물이죠, 보조건물.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보조건물을 조금 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만 지금 한 140평 정도 2층을 건물 세워놓은 겁니다.

○조동준 위원

필요하면 저는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여기 공간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게 맞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매표소하고 휴게실, 화장실 정도.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본관?

○조동준 위원

예.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본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여기에 맞게끔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얼마든지 매입가능하고 증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이게 매입관련이 아니고 현재 있는 그 부지 내에서 그 입구에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이 본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휴게실 정도만 새로 신축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예산상에 있어서 내년까지 쓸 수 있어서 올해 실시설계해서 동의 끝나면 내년에 발주해서 내년에 완료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조동준 위원

이 예산이?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거기에 포함된 예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어쨌거나 그 내용을 미리 저희가 그렇게 해서 확정적으로 해놓으면 주 사업에 변동성이 없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렇죠. 그게 저희도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조동준 위원
일단 내년까지면 조금 시간이 있고 부속건물이니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 급한 건 아니시겠네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올해 하여튼 설계는 12월까지고요. 내년에 언제든 내년 안에 완료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조동준 위원
지금 공간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빨간색 란?
정비하고 건물은 일부가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러니까 입구에 거기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잖아요?
○조동준 위원
예.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것만 멸실해서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 안에 본관 3동은 그건 아직은 현재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입구에 있는 거……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본사업에 이 건물과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굳이 이걸 먼저 이렇게 시행할 필요가 있겠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도 보니까 그렇게 짜여져 있어서 우선…… 이 사업이 당초에 할 때 1단계·2단계로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는 이 부속건물까지 되어 있고 2단계는 본관건물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본관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부속건물은 설계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1단계·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제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본 사업이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시는 게 어떻겠냐 제안드리는 거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제안은 맞는데요. 만약에 혹시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좀 늦어지면…… 이게 사업기간이 저희들이 6개월 잡았거든요.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어놓은 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본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의미 없는 건물이 될 수 있잖아요. 돈 들여서 해놓지만. 예산 있으니까 하지만.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런데 당초에 계획하고 저희도 이 부속건물을 다른 어떤 게 아니고 기본 매표소, 화장실, 휴게실 정도 그다음에 이 본관건물을 위한 창고 그 정도만 지금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저희들이 카페니 뭐 이런 거 했다가 카페는 지양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본관건물을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만 들어가는 겁니다.
○조동준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저희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조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 위원

저도 좀 전에 조동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보류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토지매입은 다 되어 있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위원

멸실해야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공간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위원님들도 다 의구심을 갖고 있고 조만간 현장방문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안이 정해져야 그거에 맞는 부속건물이 지어지는 게 맞지, 본관도 제대로…… 문화진흥과에서야 미디어센터로 가겠다라고 정하셨지만 저희 의견은 아직까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기본매표소 휴게실 이런 시설을 짓는데도 이렇게 16억이나 들어가나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2층 건물입니다.

○김아진 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위원

또 이렇게 재산취득 하신다고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하셨으면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안들을 갖고 오셔야 심의를 하지 이렇게 그냥 이 도면만 가져와서 16억 들어간다 하면 이게 금방 통과가 되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문화관을 우리가 매입한 이유가 있잖아요. 매입해서 이걸 어떻게 쓰겠다 기본적인 초기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관내에 상설전시관이 없다' 상설 전시관을 이 큰 부지에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시설을 매입을 했고—적은 금액으로 매입을 한 것도 아니고—시설을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름 자체도 그래서 문화관이라는 이름을 가칭이지만 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위원

지금 과에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나온 걸 보면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셨던 생활문화센터에다가 상설 전시관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상설 전시관 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로 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생활문화센터는 그대로 생활문화센터 내의 그 고유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이게 자꾸이 문화관이 변경되면서 다른 시설까지도 활용이 변경이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문화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라고 작년, 재작년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 관내에 부족한 게 뭔지, 우리 장항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해야 이게 유지가 되고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문화관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지금 별도로 되어 있지만 우리 용역 미디어센터로 하겠다는 그 내용부터 해가지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장항 시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거기서 거기인 시설이 많다라고 지적돼서 처음에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설들의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프로그램 시설을 다시 시설별로 조정하는 안을 저희들이 제출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또 문화관에 대해서 '기존에 전시관을 하기로 했는데 왜 바꿨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시설을 여기에 600평 되는 건물 그리고 근대유산건물이기 때문에 매입을 좀 우선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지금 있는 시설과 비슷한 걸 하면 그 시설을 해도 또 어차피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몇 개월간 '이게 어떤 시설해야 되느냐? 또 똑같은 걸 할 거냐?' 고민을 해서 '색다른 걸 해 보자' 그리고 전시관은 거기에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빛의 조명을 쏘기 위한 벽면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아진 위원

예, 제가 용역보고회 때 들어서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변경해서 일시적으로 전시시설을 할 수는 있지만 상설전시를 할 수는 없는 공간이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번 용역을 추진을 했잖습니까? 그거를 장항시설을 어떤…… '이거를 이걸 하자, 그렇게 가자' 해서 지금 그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상설전시관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기벌포생활문화센터는 현재 민간위탁도 아닌 상태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돌려서 거기는 상시 장항주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결론을 보다시피 했죠. 상설전시장을 할 곳이……

○김아진 위원

없으니까 임시로 거기를 마지못해 하신 거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아니, 거기는 계속 그렇게 주려고 했습니다.

○김아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 상설전시관을 하겠다고 거기 조성한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아니죠.

○김아진 위원

그러니까요. 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게 됐냐 이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부족한 시설이 뭐예요? 상설전시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문화관 조성할 때 '상설전시관 부족하다 상설전시관 할 수 있도록 하라' 조성할 때 매입하기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했고 매입을 한 것이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전시관, 박물관으로 봤습니다.

○김아진 위원

네, 그래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용역을 줬을 때 이 공간에 반 정도만이라도 상설전시관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서 보면 전체 공간을 다 그 미디어센터를 조성하게 되어 있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냐 이거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때 용역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에 시설할 바에는 그래도……

○김아진 위원

예, 새로운 시설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열심히 하셨고 또 고민하신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상설전시관 부족한 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밑에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지하로 되어 있고 전시공간으로 볼 수는 없는 장소에요.

어쨌든 지금 이 상설전시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어딘가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또 이 건물에 대한 증축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 내용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김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16억이에

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위원

도비는 확보가 그러면 돼요, 올해?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1단계 사업은 도비까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김경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75%를 언제까지 써야 돼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내년까지입니다.

○김경제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예정대로 가면 언제 하려고 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12월 중순에 끝나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경제 위원

12월 중순에?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금액의 문제도 있고 사용에 관한 문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는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멸실을 하고 증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와 맞는 건물들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근대화 건물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 그러는데 이게 신식으로 앞에다 2층 딱 지어놓으면 그 건물이 더 위축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변과 근대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시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른 곳에도 이런 저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전시관에 대한 문제, 문화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적재적소에 맞는 건물들을 지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비대칭되는 건물을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장항도시탐험역을 저는 왜 매입해서 왜 고쳤나를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장항역에 대한 향수를 같이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기로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위원

그런데 그 기존의 모습을 다 뜯어고쳤어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저게 리모델링한 것이 신축보다 돈이 더 들었어요. 파일을 반토막 내서 내부에서 파일 박고. 그렇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설계를 하더라도 기존의 건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가 면적을 더 차지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문화관이 근대유산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건물이냐,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건축비율이 있어서 그러면 입구만은 기본적인 사무실정도니까 현대 건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결정을 냈습니다.

○김경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굳이 그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는가, 그 건물이 그게 근래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그 뒤쪽은 철거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승인해 주고 승인 안 해주고의 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 부속건물하고……

○김경제 위원

예를 들자면 그 건물과 기존의 건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건물을 신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런데 위원님, 그 부속건물하고 본관하고

조금…… 이게 부속건물을 사용하려니 본관 건물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을 하자 그렇게.

○김경제 위원

신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가 근대유산 건물도 와서 볼거리인데 앞에는 신식 건물 지어놓는 거 보다는 그와 유사하게 옛날 향수를 낼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해서 어울리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동준 위원

지금 그러면 10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12월까지?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그럼 이미 실시설계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갔다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12월이면 금방 다 나오겠네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다음 달이죠.

○조동준 위원

미리 좀 진행을 하시지, 저희한테.

지금 당장……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러니까 저도 올해 갔을 때 이게 사업이 작년에 정해진 거라서 어느 정도는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조동준 위원

아니, 본 사업이 2단계 사업의 내용이 어쨌거나 진행이 잘 안 됐고 늦어졌고 그랬다고 하면 이 1단계 사업에 대한 것도 다소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지어놓고 뒤에를 맞추자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이미 보고 없이 벌써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저도 하여튼 의아했습니다, 그 사업이.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설계가 나오면 또 필요한 변경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기는 하니까 다시 검토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내용은 다 드리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네.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유농장 및 가공센터 주차장 부지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강신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두 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공유농장 및 가공센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박명수

주로 가공공장에 따른 주차장과 5년 간에 걸

쳐서 여러 가지 체험장이 있습니다. 일부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강신두 위원

앞으로 공모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명수

전체 사업계획은 58억으로 5개년간 사업이고요. 현재 운동장 쪽하고 장선초등학교 쌀문화센터 그 부근에 있는 시설들과 공유를 해서 농민 커뮤니티 라이브러리하고 가공센터, 가공센터가 운동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운동장 부지에 가공센터가 들어가는데요. 그에 따른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사업도 하기 전에 그 주차장부터 확보하는 건 마땅치 않고요. 제가 장선초등학교를 여러 번 다녀봤고 그쪽 옆에 가면 또 가공센터에서 내가 음료수인가 그거 만드는 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또 그쪽을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보다도 많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장선초등학교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안에 주차장까지 또 식당동까지 넓어요. 그쪽에 지금 실제로는 실패작이잖아요. 그 땅에다가 다른 가공식품을 한다든가 다른 걸 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주차장 사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위원직 그만 두더라도 안 되고 못 사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강신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아까 그 자료 가지고 계시던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위원

지도. 공유농장 부지에다 어디다 뭐 짓고 이렇게 표시한 거 있었잖아요.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자료를 보여주며)

위원님들은 이렇게 주고 당신네들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한눈에 다 알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설명을 하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제가 부지매입과 관계없이 지금 여기가 뭐하려고 그래요, 이 공터에?

○농정과장 박명수

공터에는 현재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민 커뮤니티 라이브러리라고 농업인 회의소……

○김경제 위원

내가 이 면적을 환산 해보니까 1,012평방미터나 돼요, 여기가.

○농정과장 박명수

전체부지……

○김경제 위원

거기 지금 공터가.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위원

지금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하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박명수

지금 공유농업 가공센터는 950평방미터 신축할 계획이고요, 현재입니다 계획은. 그리고 농민 커뮤티니 라이브러리는 500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500평방미터면 단층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명수

현재 2층 건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500평방미터면 실질적으로 80평 정도면 가능하죠? 2층으로 지었을 때.

○농정과장 박명수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위원

그리고 공유농업 가공센터는 규모가 어느 정

도할 예정이에요?

○농정과장 박명수

950평방미터 이렇게 예정입니다. 한 300평 조금 못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제 위원

그건 단층이에요, 2층이에요?

○농정과장 박명수

단층으로 할 겁니다. 여러 장비라든지 이런 활용성……

○김경제 위원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축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농정과장 박명수

저희가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축소나 증축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무엇을 할 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임의적으로 그린 거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경제 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여기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위원

매입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가운데다 두고 여기를 가공센터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에다 하고 주차장을 저 안쪽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활용성면에서.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박명수

저희는 같이, 가공센터하고 주차장은……

○김경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주민이 통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죠?

○농정과장 박명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절대할 수 없어요. 없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학교건물이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많이 됐습니다.

○김경제 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뭐 전체는 모르지만 일부 위원님들은 책임 있어요. 저도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활용성이 지금 있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할 필요성이 있는 건물이에요, 철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본관동은 그렇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러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할 때 추후에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철거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철거하는 거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토지 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있는 토지도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토지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캠핑장 있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활용 안 되죠? 물론 코로나라는 특성이 관계가 있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있기 전에도 안 됐죠?

○농정과장 박명수

초기단계라 조금 규모도 작고 활용성은 떨어졌었습니다.

○김경제 위원

아니, 활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캠핑장을

했다는 자체가 그게 넌센스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도 지금 손 떼고 싶어 하죠?

○농정과장 박명수

그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하고 접촉하는 부분은 데크시설을, 사실은 사진에 보면 공유농업 가공센터부지 현재 오토캠핑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데크를 설치를……

○김경제 위원

무슨 데크를 설치해요?

○농정과장 박명수

서울시에서요. 그런 요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게 어쨌든 쌀문화센터가 실패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플랫폼 앞으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건물을 지으면 과연 여기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저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58억을 들여서 공모사업 따오고 이 부분은 진짜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 여기 와서 실용계획을 세울 때는 첫째, 가공센터를 무엇을 할 건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우리 지역이나 농민들한테 이게 맞는 것인지 이러한 검토를 거쳐서 해도 성공 할지 말지 해요, 성공 할지 말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할 건가 가공시설도 무엇을 할 건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선 이렇게 지을 계획이니까 부지 삽시다, 주차장하게' 어떤 위원님들이 여기에 동의하겠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이 사업은요, 지금 도면을 말씀하기 전에 인큐베이터 사업인데 가공공장은 아니고요. 뭐든 거기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김경제 위원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산에 소방서 옆에 소곡주와 모싯잎을 통해서 가공시설만 하면 한산 다—듣기 거북하시려나 몰라도 엄청나게 되고 다 돈번다고 그랬어요—그게 뭐냐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요. 공모해서 돈 얼마 갖고 왔으니까 쓰기에 바빠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토지매입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라든가 정확하게 무엇을 할 건가를 만들어 놓고 왜 필요한지 설명하면 이보다 더 사도 좋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농정과장 박명수

저희 사업 중에는 그런 사업들을 창출하기 위한 용역비가 일부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많이 서있습니다. 그거를 담기 위한 사업이고 사전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 않게 된다면……

○김경제 위원

부지를 매입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매입하자니까요, 필요하면. 필요한데 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뭘 할 건가 정해지지도 않고 어떻게 쓸 건가도 정해지지 않고 땅만 사자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로니아 사업성 있습니까? 블루베리 사업성 있습니까?

저는 마산에 가서 대농들 최소한 7~8명 다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그럼 변경을 하든가 지역에 필요한 걸로 가야 되지, 지역민들이 농사짓는 것도 필요 없다는데 그 분들도 필요 없다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뭘 가공해서 뭔 창업을 합니까?

저는 지금 이 부지 말고 옆에 있는 부지 사자고 할 때 전체 부지를 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유농장이 제대로 되면, 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필지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 어디 있어요? 그림 갖고 오셔봐요. 아까 그림……

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양손에 자료를 보여주며)

당신들은 이렇게 갖고 있고. 이게 나쁜 말로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

그만 할게요.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아진 위원

사실 저는 김경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되면 공유농장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유농장이 더 많아져야 실습도 하고 거기서 활용을 해서 이 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보여져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아진 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 일일이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으셔야 이 승인을 하기는 오히려 과장님도 어려우시지 않아요? 이런 자료를 줄 때 좀 제대로…… 그 이전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지만 심의 때도 그 관련 자료를 자세히 주셨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이 주차장 부지를 차라리 공유농장 옆에 이렇게 하는 안은 생각해 보셨었나요?

○농정과장 박명수

기존부지에는 사실은 오토캠핑장이라고 균형발전 1단계에서 오토캠핑장 시설만 해놓고 한 2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투자한지 2년밖에 안 된 사업을 다 걷어내고 다시 실시하기는 무리가 있었고요. 이 그림 상에—못 받으신 위원님도 많으신데—이거는 용역을 저희가 주고 승인을 받을 때 한 계획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림이 아니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고 부지확보 차원에서 이 그림없이 본 사업을 위한 주차장 부지와 체험장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조성 계획을 냈던 사항입니다.

○김아진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 부지에 그러면 공유가공센터가 들어갈 계획이신가요?

○농정과장 박명수

현재까지는 정확히 그림이…… 용역을 받아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2021년도가 아니라 22, 23, 24, 25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을 시설에 대한 순수 군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너무 조급한 것 같아서 포기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단계를 내년도 내후년도에 밟아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림은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아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에 가공센터를 지을 거고 이 운동장에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여길 매입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아진 위원

그런데 이미 조성되어 있는 이 오토캠핑장하고 주차장 부지를 굳이 건물로 짓고 또 새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이 않은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니까 공유센터가 이쪽으로 지금 매입하려는 주차장부지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게 이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실시계획 설계단계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별도 위원님한테 어느 정도 가그림이 그려진다고 보면 별도계획을 드려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아진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도 안 세워졌는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 이러니까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셨었던 거고요.

지금 매입하게 되는 이 부지에 공유센터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아진 위원

그런 계획들이 변경될 때마다 보고를 제때 제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산보건지소 멸실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보건행정과장 이진희입니다. 김재연 보건소장이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보충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멸실 및 신축 관련된 안건은 저희가 문산보건지소가 1995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지난 9월달에 내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안건을 상정하게 됐고요. 지금 국비가 5억 3,300에 도비가 1억 3,300, 군비가 1억 3,300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군자체 균형발전사업으로 앞전에 부의안건이었던 기산면 주민복합센터와 맥을 좀 같이 하는데요. 문산면 복지, 체육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보건지소 그다음에 근린형 체육관까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부서는 체육사업소로 결정을 해서 각 파트별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비는 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국비 교부를 위해서 도비도 계상이 지금 되어 있고요. 군비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안건이 되겠습니다.

문산면 복합생활문화센터 사업내용으로는 추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1억 4,800인데요. 체육관 27억 4,900이고 주민자치센터가 16억, 저희 보건지소가 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문산면 복지회관 있는 자리는 비워져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지금 계획으로는 문산면 복지회관하고 문산마을도서관…… 페이지 67쪽에 나와 있는 위치도를 보시면 문산면사무소 하단부에 진입로 쪽에 문산면 복지회관 그다음에 오른쪽에 마을도서관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지소 바로 위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이 4개 건물을 철거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부지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을 하는 걸로.

○조동준 위원

지구대는 놔두고?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거기에 치안센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중인데요. 최초 의견은 자기들은 이 사업에 참여 않는 걸로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준 위원

작은도서관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그렇습니다.

○조동준 위원

안쪽에 119소방대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119지구대는 이 사업에 계획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존치를……

○조동준 위원

자리가 지금 건물이 어떻게 앉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내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거의 과업기간이 짧게는 10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기존에 정중앙을 관통하는 문산면사무소로 올라가는 도로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하겠다는……

○조동준 위원

아, 통로를 확보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좌측에 있는 농어촌도로를 활용해서 기역자 식으로 면사무소를 진출입을 할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인접 토지주와 토지협의가 원만히 될지 어떨지 아직 불투명하고 현재 계획은 이렇고요. 내년도에 다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동준 위원

단독으로 신축으로 잡아놓으신 이 내용은 지금 보건지소만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현재 부의안건은 지소만 관련된 내용이고요.

○조동준 위원

재산가액도 그러면 변동성이 있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그렇습니다.

○조동준 위원

지금 말씀은 문산 마을도서관까지 해서 최소한 지금 복지회관, 보건소, 도서관 이 3개 정도는 포함을 시키는 거란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그렇습니다.

○조동준 위원

당연히 치안센터도 들어가야……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전체 토지의 원활한 활용이라든가……

○조동준 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언제 확정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기획실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조만간 보고를 드릴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조동준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일정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면사무소 들어가는 걸 필로티 구조로 한다고요, 도로를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김경제 위원

몇 미터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그거는 지금 구상만 되어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김경제 위원

58억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김경제 위원

지금 도로 필로티로 하는 그 자체도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건축물 자체를 현재 2층으로 짓는데 도로부분만 필로티로 해서 개방을 한다는 얘기죠. 건물 아래쪽으로.

○김경제 위원

그게 몇 미터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차량 높이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아니, 길이.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폭이요, 아니면 전체 길이요?

○김경제 위원

길이. 폭이야 어쨌든 2차선이 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김경제 위원

길이.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길이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 구상만 나와 있는 상태라서요.

○김경제 위원

왜 그러냐면 58억 규모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이것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도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도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양손에 자료를 보여주며)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복지회관하고 도서관 사이에 가운데에 있는 도로를.

○김경제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상당히 길잖아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건물을 이 도로 전체 연장선상에 전체가 앉는 게 어느 주차장이라든가 잔여부지……

○김경제 위원

필로티 구조로 가면 면사무소가 굉장히 높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김경제 위원

아래서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김경제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58억에 금액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추후에 이 금액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건축물 그 구조를 필로티 한다는 얘기죠, 도로 선형을 어떻게……

○김경제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구조물을 그렇게 하고 밑으로 차량이 가겠다?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김경제 위원

건물 밑으로 가겠다는 거죠, 도로가?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김경제 위원

그게 가능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일단 가능한 걸로 지금 구상을 했어요.

○김경제 위원

대형차들이 갈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승용차나……

○김경제 위원

아까 한 게 뭐냐면, 도로를 필로티 구조로 한다는 판단으로 했고. 건물을 그렇게 지어서 지금 차를 통행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김경제 위원

그랬을 때 대형차들이 지나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대형차는 진출입을 검토를 안 했을 테고요.

○김경제 위원

승용차는 다닐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승용차나 포터 정도를 검토를 했겠죠.

○김경제 위원

건물 밑으로 필로티 구조를 해서 다닌다? 그럼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지금 구상안입니다.

○김경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 중에 문제가 뭐냐면 '토지매입이 일부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든 매입을 하려고 하고 이 매입이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되면 좋고 안 되면 필로티 구조로 건물 짓겠다' 이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이해를 처음에는 못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동준 위원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짓겠다고 하는 것은 기획실 생각이신 거고.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조동준 위원

보건소만 별도로 아까 그 말씀하신 사업이 선정이 된 거죠,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문산복지회관 복합회관을 구상하고 있으니 같이 합치겠다 이 얘기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일단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이해를 구하시라고. 내년에 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지소 외에 복지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멸실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조동준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조동준 위원

만약에 그 구상대로 한다면.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동의를 다시 구하겠죠.

○조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호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기산 보건지소가 몇 년 됐어요, 여기가?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15년 정도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몇 년 정도 경과돼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2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16년 됐습니다, 16년.

○김경제 위원

16년?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김경제 위원

지금 별개로, 지금 현재 복합건물을 조성을 하게 되면 국비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어렵습니다.

○김경제 위원

전혀 받을 수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김경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70% 가량이 가능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66.6% 정도.

○김경제 위원

거기에 도비도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김경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됐다고요, 정확히?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예, 기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가셨었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도 여러 번 됐었는데요. 저희들도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사업범주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시초면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초면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초면장 김은이

시초면장 김은이입니다.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지금 보니까 약 180여 평?

○시초면장 김은이

예.

○김경제 위원

한 90평 정도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2층 규모니까.

○시초면장 김은이

예.

○김경제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시초나 문산 이런 데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지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이렇게 꼭 2층 건물로 지어서 어르신들이 추후에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부지가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단초롭고 이렇게 할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리적인 여건으로 고장 시에 대처도 쉽지도 않아요.

○시초면장 김은이

예.

○김경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여기 시초의 여건상 보면 토지매입을 좀 넓혀서라도 단층으로,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좋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시초면장 김은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층으로 해서 연면적 600㎡로 한 거는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00㎡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2일날 주민자치센터 현장을 돌아다녀가면서 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초면에 고령화가 많은데 2층 건물을 지으면 그런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으로 하면 면적도 들어가지만 BF인증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과다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층으로 해서 그 부분에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현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7시09분 속개)

○위원장 이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예!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도 있고 해서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호

김경제 위원으로부터 본안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안건의 보류를 제안하셨습니다.

동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의 성명과 수

강신두, 김경제, 조동준, 노성철,
이현호, 김아진 (6명)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재무과장	박범수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농정과장	박명수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보건행정과장	이진희
시초면장	김은이